

김관영 지지율 41.4%... 민주 지지층도 선택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

최근 여론조사 결과... 김 선거캠프 "정당보다 전북의 미래 책임질 인물 기준으로 선택... 도민 변화요구 보여줘"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무소속 후보에게 40% 넘는 지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11일 "도민들이 정당보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다"며 "이번 여론조사는 도민들의 변화 요구를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

문기관 조원씨앤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사 적합도에서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는 43.2%를 기록해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39.7%)를 오차범위 내인 3.5%포인트 차로 앞섰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이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46.8%는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를 선택했지만, 41.4%는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양 후보 간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해 사실상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당 지지

와 후보 선택을 분리해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78%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도지사 후보 선택에서는 무소속 후보에게도 상당한 지지가 모인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북 유권자들이 민주당 자체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면서도 공천 과정과 후보 경쟁력은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결과"라며 "인물 경쟁력이 정당 구도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김관영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전북 발전을 이끌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찾으려는 민심이 반영됐다"며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6년 4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표본을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만호 기자

'도민주권 시대' 선언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선대위, 참여위 출범식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민이 전부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도민주권 시대"를 공식 선언하고, 도민 참여형 선거 운동과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원택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선대위 사무실에서 이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도민 주권 참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참여형 정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번에 출범한 도민주권 참여위원회는 선대위가 앞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도민 참여를 일회성 선거 조직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개편과 집담 부서 설치 등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향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검토해 실제 도정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도민주권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선거 캠페인 기획과 현장 활동을 담당하며, 도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민군 창업도시 조성사업 의료 분야 피지컬AI 도입 등 미래 전략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함께 공개됐다.

선대위는 이를 두고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공약으로 발전하는 정치 효능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선대위는 앞으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도민 참여를 일회성 선거 조직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도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개편과 집담 부서 설치 등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오늘 민주 호남권 공천자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일터'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오는 12일 전남 강진에서 중앙당 주최로 '호남권 공천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전남·광주 지역 민주당 공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고, 호남 민심 결집과 정권 성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자리다.

행사에는 호남권 광역단체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중앙당 지도부도 함께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자 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제에 돌입하고 지역별 조직 결속과 공동 선거운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한병도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1일 완산구 중화사동에 위치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북의 새로운 미래, 이원택·민주당이 함께 열 것"

민주 한병도 원내대표, 이원택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완산구 중화사동에 위치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전북의 새로운 미래는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방문 자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 선패야 당·정·청 원팀의 힘으로 국

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추진이 가능"이라며 "그래야 획기적인 전북 발전과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외대에서 함께 일했던 이원택 후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이자 전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반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야말로 집권 여당과 함께 전북 발전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정읍 대도약, 함께 열어가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민선 9기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정읍의 대도약! 함께 열어가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민선 9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지난 4년 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서, 정읍의 산업생태계를 첨단 바이오 중심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며, 지역 안에서 소독과 소비가 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민선 9기 정책 목표로 △풍요로운 농업·민생경제 △점점 있는 교육문화 △함께 나누는 행복복지 △창원 정착과 인구 확장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정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약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형

공약, 정읍 현실에 맞는 지역맞춤형 공약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하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내장호 사계절 자연치유 관광지 조성하고 정읍천 수변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고, 스포츠타운과 거점형 체육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공약 발표와 함께 "지금 정읍에 필요한 것은 민선 8기 동안 다져 놓은 기반 위에서 연속적인 발전 노력"이라며 "민선 9기에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정읍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한 원내대표는 "누가 당선돼야 전북 대도약이 가능하다. 바로 이원택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예비후보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원팀과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북 대전환의 결실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

이원택 후보 선대위 합류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던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이 이원택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원택 예비후보 선대위는 11일 유의식이 이 후보의 설득 끝에 무소속 출마 계획을 철회하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전북 발전과 민주당 원팀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당을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해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유 의장의 합류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당원의 선택, 감정 규정 의해 뒤바뀌어선 안돼"

강동화 도의원, 민주당 경선 공정성 문제 제기... 재검토 요청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감정 적용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중앙당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경선 투표에서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적용으로 최종 결과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원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성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재심위원회가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이후 열린 것으로 강 의원은 도당 판단에 불복하고 중앙당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제기한 문제는 △감정 규정 적용과 절차적 부당성 △18년 전 무소속 출마 이력에 대한 과도한 소급 적용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미 반영 등 크게 세 가지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적 억울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정경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문제"라며 "당원들이 직



접 선택한 결과가 감정 규정 의해 뒤바뀌는 일이 반복된다면 경선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늘 강조해 온 공정과 민주주의 가치가 실제 경선 과정에서 구원되어야 한다"며 "중앙당이 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번 사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재심위원회는 앞서 강 의원이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당원들의 권리와 공정경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후 후 중앙당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만호 기자

"전 도민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할 것"

국힘 양정무 도지사 후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전 도민에게 1인당 200만원의 긴급생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도민의 삶에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제1호 공약으로 전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재정자립도 역시 2025년 23.5%에서 올해 21.8%까지 떨어졌다"며 "이는 지역경



제의 활력이 마혀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긴급생활지원금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지금 전북경제는 원만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강력한 긴급수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